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유명 기업 혹은 단체, 상품명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금전적인 목적으로 매입한 뒤 훨씬 비싼 가격에 해당 회사에 되파는 행위로, 일명 인터넷 알박기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닷컴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1994년 월스트리트닷컴(www.wallstreet.com)을 70달러에 매입했던 사람은 1999년에 100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 월스트리트닷컴은 현재 스포츠 및 카지노 관련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8년에는 국제적 정유회사 엑슨과 모빌이 합병하면서 ExxonMobil.com 도메인을 거액에 구입한 바 있다. 당시 이 도메인은 한국인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최근 한나라당 예비 당명에 대한 도메인 선점이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말 국민한마음, 선진한국21, 밝은미래 등 3가지를 최종 당명 후보로 발표했으나, 해당 당명의 도메인을 선점당한 것. 결국 다른 당명 후보를 추가로 선정해 도메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유사한 사례로 유명 회사나 단체명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도메인을 매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접속자가 실수로 한 두개의 알파벳을 잘못 쳤을 경우를 노리는 것. 포르노사이트나 해당 회사의 동종업체가 이같은 전략을 사용할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DIS(Driver Information System)

차량용 네트워크 기술을 집약한 것으로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DVD 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기는 물론 윈도, 시트, 도어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모니터 하나로 모든 기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자동차의 실내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시트 및 핸들 높이 등이 운전자 체형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된다. 휴대전화나 PDA를 이용하여 자동차 밖에서도 자동차 도어나 윈도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도난당했을 경우 DIS에 연결된 내비게이션의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트위스터(Twister)

청소년기를 지났지만 가정을 꾸리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살며, 직장을 갖지 않는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의 미국의 젊은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직장을 갖더라도 자주 이동하며, 성인이지만 말투와 옷차림·사교 생활 등은 10대와 다를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도 저도 아닌 (betwixt), 사이에 낀(between) 세대라는 의미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직업을 갖고 자기계발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에 논란이 있지만, '무책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지적도 있다.